

10대 사라지는 교회, 새 판 짠다

입력 2026-05-25 16:49

꿈미 '다음세대 목회전략 콘퍼런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25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2026 다음세대 목회전략 콘퍼런스' 주제 강의를 전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다음세대 눈높이에 맞춰 목회의 방향타를 고쳐 잡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과거의 익숙한 목회 경험을 내려놓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복음 전달법을 찾기 위해서다.

'2026 다음세대 목회전략 콘퍼런스'가 25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주경훈 목사)에서 열렸다. (사)꿈이있는미래(꿈미·대표 주경훈 목사)가 주최한 이번 콘퍼런스엔 전국 각지의 목회자와 신학생 1000여명이 참석했다.



'2026 다음세대 목회전략 콘퍼런스' 참가자들이 콘퍼런스 주제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콘퍼런스 첫 주제강의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다음세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전했다. 그는 현시대를 VUCA(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 시대로 진단한 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다음세대 목회 영역에도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염 총장은 일본의 역사 분석서 '실패의 본질'을 인용하며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실패를 이끄는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 경험에 안주해 변화를 무시한 결과 태평양전쟁에서 참패했다"며 한국교회 역시 20세기 후반의 성공 신화에 머물러 있다면, 다음세대와의 단절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지적했다. 그는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면 과거의 영광을 단호히 부정하고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자기혁신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수 카이스트 교수가 25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2026 다음세대 목회전략 콘퍼런스' 주제 강의를 전하고 있다.

김대수 카이스트 교수는 '뇌와 행동의 관계' 주제로 다음세대 소통 전략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세대의 일상어에 맞춰 교회의 사역 언어를 번역해보자 제안이다. 대표적인 예가 구원과 '스마트폰 리폼' 비유다. 김 교수는 "하나님은 고장 난 인간을 절대 버리지 않고 다시 리폼해 쓰신다고 설명하면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세대의 신앙 이탈을 막을 구조적 해법도 제시됐다. '가정 신앙 전수'를 주제로 강의를 전한 박상진 한동대 석좌교수는 한국교회 다음세대 이탈의 근본 원인으로 신앙과 학업의 분리를 지목했다. 입시 중심 가치관에 휩쓸려 신앙을 떠나는 현상을 막으려면 교회가 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 교수는 "지역 중심의 전통적인 교구 편성 대신 '자녀 연령별 부모 그룹'으로 교구를 재편해봄 직하다"며 "기성세대와 다음세대 목회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꿈미 대표인 주경훈 오륜교회 목사가 25일 서울 강동구의 교회에서 '2026 다음세대 목회전략 콘퍼런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꿈미 제공

콘퍼런스 이튿날인 26일엔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세대 목회 방향을 재설계하는 주제 강의를 이어진다. 꿈미가 지난 20일 출간한 도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이 바탕이다. 콘퍼런스 기간엔 '찬양' '가정 신앙' '기독교 세계관' 등 청소년·청년 사역자들의 고민과 전략을 나눌 선택 강의도 진행된다.

주경훈 목사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폭보다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율이 훨씬 가파른 현실은 지금 우리의 다음세대 교육 전략 어딘가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단적 증거"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이현성 김연우 기자 sage@kmib.co.kr